

## 중국 디지털 감시 체계가 재중 탈북민에 미치는 영향은?

북한인권정보센터, ‘중국의 불법체류 외국인 정책과 디지털 감시 체계’ 주제 세미나 개최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13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중국의 불법체류 외국인 정책과 디지털 감시 체계: 재중 탈북민 식별·등록·통제 매커니즘’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 당국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탈북민 감시 및 인권 침해 문제를 조망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제 강화가 재중 탈북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 기술이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사용될 때 발생하는 인권 문제를 다뤘다. NKDB는 “수년 또는 20년 이상 중국에 체류하던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오는 결정을 내린 주된 이유가 중국 내 통제 강화에 있었다”고 했다.

NKDB는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에 거주한 북한이탈주민 102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심층 인터뷰, 문헌 분석을 통해 중국의 디지털 감시 체계와 그 영향력을 파악했다. 연구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재중 탈북민을 대상으로 식별, 등록, 통제의 3단계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CCTV, 핸드폰 앱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안면 인식, 음성, 지문, 혈액 등 민감 정보를 동의 없이 수

집하고 있어, 재중 탈북민의 인권 침해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중국의 디지털 감시 시스템은 중국 전역에 걸쳐 적용되며, 외국인인과 소수민족을 포함한 모든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시스템은 본래 합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으나, 특정 집단, 특히 재중 탈북민에게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환영사를 전한 NKDB 박종훈 이사장은 “이 자리를 통해 디지털 감시 시대에서 인권이 어떻게 침식되고 있는지를 고찰하며, 인도적 대응 방안과 시민들의 연대와 참여를 통해 인권 보호의 길을 함께 모색하자고 한다”고 했다.

이어서 Roland Honekamp 주한EU대표부 공관 차석이 축사를 전했다. 축사 이후 세미나가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NKDB의 이지만 조사분석원과 신동휘 조사분석원이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중국 체류 경험에 있는 탈북민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중국의 디지털 감시 체계와 재중 탈북민의 현실

‘중국의 디지털 감시 체계 현황’에 대해 발표한 이지만 조사분석원은 중국이 인



세미나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구 식별과 이동 통제, 감시의 수단으로 디지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했다. 그는 “재중 탈북민들이 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디지털 감시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 분석원은 “첫째, 중국은 효율적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호구와 신분증 제도를 지속 개혁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 개인정보와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여 전체주의적 감시의 기반을 확보함과 동시에 불법 체류자에 대한 식별을 용이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둘째로 중국은 국경 지역에서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출입국자에 대한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었

다”며 “한편 그 방식이 입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 투명성이 부족하고, 그 활용 범위가 기관의 재량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었다. 난민이주민 보호 매커니즘이 부재한 중국에서 이러한 포괄적인 생체정보 수집과 활용은 그것을 사회적 감시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

또 “마지막으로 중국은 동태 관리 정책을 통해 이미 자국 내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결혼 여성에 대하여 중국 국적 납성과의 사실혼 관계, 그 슬하의 자녀, 그 가정의 화목 정도를 기준으로 선별적으로 체류를 허용하고 일상생활 전반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디지털 감시와 탈북민의 불안정한 신분

중국의 디지털 감시의 재중 탈북민 적용 실태에 대해 발표한 신동휘 조사분석원은 “재중 탈북민은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라는 신분의 특수성과 난민 심사 제도(RSD)를 통해 사실상의 난민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의 제도적 배치와 차별적 정책 구조 속에 놓여 있다”며 “비록 중국의 디지털 감시가 오직 재중 탈북민만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지만, 불법 체류자라는 불안정한 신분과의 상호작용 가운데 중국 당국의 디지털 감시는 자신이 언제든지 북한으로 강제송환 될 수 있다는 불안 요소로 작용함으로써 장기간 중국에서 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으로의 입국을 고려하게 하는 주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재중 탈북민이 남한에 정착한 이후, 중국에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등록되어 있던 개인정보와 생체정보는 여전히 그들이 북한 출신임을 식별하는 매개로 작용하였고, 그 결과 재중 가족에 대한 공안기관의 조사나 출입국 항에서의 출국 권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보위부에 의한 신변 위협성 경고 등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중국의 디지털 감시 환경 활용한 북한 보위부의 재중 탈북민 감시

NKDB는 “본 보고서는 중국의 디지털 감시가 재중 탈북민에게 어떻게 적용되며 어떤 인권 침해적 상황을 초래하는가를 분석했다. 그 의의는 디지털 감시와 신기술이 인간 통제 및 감시 구조, 특히 북한 인권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있다”며 “그러나 중국의 디지털 감시 기술이 단지 중국 당국의 통제 수단에 그치지 않고,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보위부가 이러한 감시 인프라로 인한 사회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중국의 디지털 감시 환경을 활용하여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보위부원들이 재중 탈북민을 식별하고 통제하는 데 이용하고 있으며, 북한 내부에서는 이미 중국산 감시 기술을 도입해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감시를 정교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국의 디지털 감시 체계가 북한 내부의 통제 강화와 재중 탈북민의 인권침해에 미치는 양상을 지속 주목하고, 추국가적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감시가 초래하는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디지털 감시와 북한 인권의 교차점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 정책 제언, 국제연대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장지동 기자

## “기독 청소년들이여, AI로 꿈을 창조하라!”

웨이커스·세계성시화운동본부 등, 내년 2월 3~5일 청소년 캠프 개최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청소년 AI 드림 캠프’가 내년 2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간 안산동산교회의 앤케렘수양관에서 진행된다. 꿈을 잃은

채 AI 등에 중독되어 가는 청소년들에게 능동적 AI 활용방안 등을 교육하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된 캠프다.

이 캠프는 다음세대콘텐츠연구소 웨이커스(이하 웨이커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칼빈대학교, 한동대학교 VIC센터가 함께 준비하고 있다. 캠프 주최 측은 13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예홀에서 기

자회견을 갖고, 캠프의 취지와 의미 등을 소개했다.

웨이커스(대표 박성호)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다양한 주제로 청소년 캠프를 개최해왔고, 이번 캠프가 여덟 번째다. 캠프 주제는 ‘AI로 꿈을 창조하라’다.

캠프에선 크리스천 AI 전문가들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강의를 하고, 칼빈대학교 미디어 선교동아리 ‘라함’의 대학생 스태프들이 청소년들과 함께 주제별 토론 및 조별 창작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직접 AI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저녁에는 영상집회와 ‘꿈 기도회’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에는 조별 발표회와 콘텐츠 장학금 전달식이 있다.

박성호 대표는 “AI 시대에 우리 청소년

들이 세상의 트렌드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있다. 왜곡된 미디어와 문화 속에서 부정적 자아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때 미디어를 주체적이고 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과 윤리적 태도를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AI 시대를 준비하고, 창조적 영성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청소년들은 이번 캠프에서 AI 알고리즘의 세상이 아닌,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깊은 사랑과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인 김철영 목사는 “지금 세대는 사사기의 기록처

럼 여호와와 그가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며 “주일학교 등 교회학교의 50% 이상이 문을 닫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 세대 부흥은 한국교회에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주제”라고 했다.

김 목사는 “오늘날 스마트폰 등 많은 미디어 매체들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과 성경 말씀,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캠프는 바로 이러한 청소년들을 변화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AI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결단하는 중요한 캠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캠프에 스태프로 참여하는 양지제교회 조혜정 전도사는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이자 얼마로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많은 유혹에서 흔들리고 분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이 복음 안에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전도사는 또 “AI로 무엇이든 만들



제8회 청소년 비전캠프를 소개하는 기자회견에서 주최 측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혜정 전도사, 웨이커스 박성호 대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한교총 사무총장 신평식 목사 ©김진영 기자

수 있는 시대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청소년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아무렇게나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비전을 위해 AI를 사용할 줄 아는 기독교 리더로 세워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캠프를 격려하기 위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사무총장인 신평식 목사가 참석하기도 했다. 신 목사

는 “이번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캠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세대콘텐츠연구소 웨이커스 홈페이지(www.wakers.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070 4277 1876)로도 문의할 수 있다. 캠프 참가비는 현장 등록 11만 원, 12월까지 등록시 9만 원이다.

김진영 기자

## 사통팔달 강원시대가 시작됩니다.

